



통권40호

한국보건복지부
보건기획처

주제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5.2.8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고 문익환 목사님 1주기 추도식

1995.1.18 마석 모란공원

문익환 목사님이 우리 겨레에 1995년 통일의 꿈을 심으시고 떠나신지 어느덧 1주기가 되었습니다. 생전에 힘겹게 오르시던 통일언덕, 이제 우리가 이어 영마루에 다다라 목사님의 부활을 볼 때입니다. 사진은 지난 1월 18일 마석 모란공원묘지에서 열린 고 문익환 목사님 1주기 추도식 사진입니다.

나와 함께 모든 노래가 사라진다면

김 남 주

내가 심고 가꾼 꽃나무는
아무리 아쉬워도
나 없이 그 어느 겨울을
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꽃은 해마다
제각기 모두 제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늘 찾은 별은
혹 그 언제인가
먼 은하계에서 영영 사라져
더는 누구도 찾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오늘밤처럼
서로 속삭일 것이다.
언제나 별이

내가 내켜 부른 노래는
어느 한 가슴에도
메아리의 먼 여운조차
남기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노래가
왜 멎어야 하겠는가
이 세상에서……

무상이 있는 곳에
영원도 있어
희망이 있다.
나와 함께 모든 별이 꺼지고
모든 노래가 사라진다면
내가 어찌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가.

민족시인 김남주님을 볼 수 없었던 1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2월 11일, 여의도 백인회관에서 유고시집 「나와 함께 모든 노래가 사라진다면」,
번역시집 「은박지에 새긴 사람」 등의 출판기념회 및 추모 문학의 밤이 열리고,
12일, 망월동 묘지에서 추모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양심수 가족을 찾아서
시노맹 전경희씨의 어머니 이점순 님 편

운동하는 사람들 모두 너무 좋기만 합니다

편집부

“글쎄, 어떤 사진을 넣으면 좋을까. 이것저것 가져오긴 했지만… 이 사진은 약혼식 때 찍은 사진이예요. 계속 밖에서 지내다 하루전날 들어와서는 단장하고 찍은 사진인데…” 물끄러미 사진을 들여다 보시는 어머니의 눈가에 그리움이 짙게 베어있다. 자꾸만 쓰다듬으시는 사진속엔 환한 웃음을 짓는 전경희 님(32세)과 백태웅(사노맹 중앙위원. 92년 4월 구속, 15년형 선고받고 원주교도소 수감중. 33세)님의 모습이 가득 차 있다. 작은 체구에 수줍으면서도 따뜻한 미소의 전경희 님은 한눈에도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다.

절로 웃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 속에서 목요집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신 어머니(이점순 님. 53세)는 인터뷰를 위해 준비해 오신듯 무언가를 잔뜩 꺼내 놓으셨다. 사진이며 편지며 메모용지들이며 자식의 이야기에 관한건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려는 어머니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몇번을 보고 또 보았을 사진이며 편지일텐데 다시 들여다 보시며 그 정겨운 얼굴에 흐뭇해하시는 모습은 마냥 어린 소녀와도 같다.

반독재 운동을 하던 남편

어머니의 고향은 경북 청송. 당시 인기있던 직업인 공군 출신 남편에게 중매로 시집와 충청도에서 보금자리를 꾸미셨다. 그러나 결혼 한달 후 ‘서울에 가, 일 좀 보고 오겠다’는 남편은 몇달이 가도 소식이 없었다. 알고보니 그 당시 남편은 4.19 혁명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민주화

활동을 펼치는 청년이었다고 한다. 3년간 두세번 집에 들리는 남편이 야속하여 보따리를 싸고 친정으로 향했던 적도 있었으나 엄격하기로 유명한 안동 양반집인 친정에서는 그림자도 보려하지 않았다 한다. 결국 이런저런 장사로 4형제를 기꿔 오셨는데 6,70년대 반독재 운동을 꾸준히 펼쳐오셨던 아버님의 뒤를 이제는 딸이 잊게 된 셈인 것이다.

“4남매 중 경희가 맏이에요. 어릴때부터 남 힘든 꼴 못보네요. 가정이 힘든 친구라도 옆에 있으면 꼭 제손으로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가요. 집안에서 바깥일 하는 엄마를 도와 어린 동생들 추스리고 살림하느라 어린것이 고생도 많이 했지요.”

그런 전경희 님이 노동자의 길을 함께 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대학 4학년때 졸업논문을 쓰기 위해 구로공단 등에서 몇 개월간 지낸것이 계기가 된 듯 싶다고 말씀하신다. 그곳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집에서 이야기도 많이하고 아버지와 밤새 토론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더니 졸업 후엔 전공쪽의 취업추천을 거부하고 녹두출판사에서 1년간 일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넓히고 고민도 깊어갔다고 한다. 약혼자 백태웅씨를 만난 곳도 바로 그 곳.

89년 8월 출판사를 그만두면서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싶었더니 친구를 도우러 집을 나가야한다고 선언,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생겼다. 그때까지 딸의 생각이나 활동을 인정해 주



나는 함께 모든 노래

사랑한다만

한국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던 아버지도 나이든 딸이 나가 지내겠다는 말에
펄쩍 뛰어 반대했지만, 전경희 님은 그날 새벽,
편지 한장을 남겨두고 험한 길을 나섰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보면 자식 맘을 알지요.
아무래도 공장 쪽으로 갔지 싶어 시흥동, 구로동
을 몇날을 헤맸어요. 결국 자취방을 찾아 입고
나갔던 옷과 신발을 확인했지만 그저 멍하니 바
라보다 돌아왔지요. 그뒤로 다시 찾진 않았어
요…

그래도 처음 얼마간은 주말에라도 찾아오는가
싶더니, 나중엔 그것도 뜨거워져 명절때나 연락이
오곤 했다고 한다.

명절때에 올때도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우루루 데
리고 와 며칠씩 묵다가 가곤 했
는데 말은 안해도 사정이 있겠다
싶어, 오겠다는 친척도 따돌리고
뒷바라지를 해 주셨다고 한다.

“알고보니 그 애들이 전부 수
배중인 애들이었네. 나중에야 내가
경희속을 알게 됐지요. 그애들
과 함께 다니면서 뒷바라지 해주
느라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싶
더군요.”

둘, 건강하고 마음 바른데

그런 가족들의 이해 속에서 89년

간소하나마 백태웅씨와 약혼식도 올리게 되었다.
항상 쫓겨야하는 불안정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면
서도 딸의 마음하나 믿고 허락했다고 하신다.

“처음엔 밉기도 했지. 그런 고생 나 하나만해
도 지겨운데 왜 저까지 사서 고생이냐 싶고, 하

지만 둘, 건강하고 마음바른데 나중엔 웃으며 살
날이 있지 않겠나 했어요.”

92년 4월. 그간의 작은 평화를 깨고 마흔하늘
의 날벼락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른바 사노맹.

79년 남민전 사건 이후 최대의 조직사건이라는
제목아래, 눈에 선한 얼굴들이 TV에 나오는 것
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었다.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 했다고 TV에서 떠
들어대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랬던지 그날밤은
내 생애 최악의 밤이었어요. 제대로 내막을 모
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고… 다음날로 물어
물어 민가협을 찾아갔지요.”



▲ 지난 89년, 약혼식날의 행복한 한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창살을 사이에 두고 비라봐야 하는 아
픈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왼쪽부터 이점순 어머니, 백태웅 님, 전경희 님, 전태운 아버님.

몇몇 어머니들과 함께 주자파출소로 가 명단을
확인하고서는 매일 농성을 벌이셨단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도 안기부라 하면 기가 죽는데, 매
일 벌인 싸움 이야기를 듣자니 후덕하기만 해 보
이는 어머니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는가 싶었다.



1주일 만에 면회를 했는데 잘해야 5-10분인 면회시간을 눈물로 보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는데 결국 그동안 새까맣게 타버린 가슴과는 반대로 웃으며 면회를 끝내셨다 한다.

“애들 아버지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동생들도 제 언니, 누나를 밀어주려하니 내 마음도 한결 편했지요. 한번은 경희동생과 면회를 갖는데 애가 그곳 직원들을 보더니, 대뜸 ‘우리언니 때리지 마세요. 우리언니 때리면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하며 주먹을 치켜들지 않겠어요? 우습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하대요.”

처음엔 ‘정말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는가’ 걱정도 되고 남들의 이목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면회를 다니고 이곳저곳에서 얘기를 듣다보니 전혀 그런일이 아니었음에 안심했다고 한다. 오히려 시련속에서도 꿋꿋하고 믿음직스럽기만 한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마음도 편해져 지금은 만병이 다 달아난 듯 싶다고 하신다.

“재판과정은 참 좋았어요. 태웅이도 그렇고 그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 재판은 다 보았지요. 그때 39명인가 잡혔는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 애들이 다 한사람 같애요. 힘없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는 애들 얘기를 들으며 어쩌면 모두 그리 마음이 한결같은지 더욱 힘이나고 좋았어요.

애들 단체 뿐이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들 모두 너무 좋기만합니다.”

오래 있을 사람들이 마음에 밟혀요

현재 전경희 님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이며 5월의 만기출소를 기다리고 있다.

“건강해요. 그곳에서도 맑게 생활하고 있으니

까 면회갔다온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지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다른 이를 쟁기기에 바쁘지요. 제발등 불도 끌 줄 알았음 싶은데… 5월이 출소예정인데 마음은 썩 기쁘지 않네요. 우리 경희가 나온다고 해도 그 곳에 오래 있을 사람들이 마음에 밟혀요”

주변엔 너무 죄없이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 그나마의 좋은 일도 받아들이기에 미안하다는 어머니.

어머니의 바램은 너무도 소박하고 작지만 그것을 이루기에도 사회는 너무 야박한가 보다.

“이제는 국보법이 절대로 없어져야 합니다. 코에 걸며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

이제까지 국보법 때문에 의문사도 많았고 병폐도 제일 많았지요. 제일 마음 아픈건 유가협 어머님들을 볼 때지요. 이번에 국가보안법 위헌 제청 신청이 된 걸 보고 좋아서 당장 아이들 면회를 갔어요. 그저 악법도 없어지고 세상도 좋아져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기수 분들도 빨리 나오셨으면 합니다. 그땐 정말 두 팔 걷어부치고 큰 잔치라도 벌여야지요.”

예전에 백태웅씨가 그랬단다. ‘어머니, 저희 결혼식에는 다른건 필요없고 그저 큰 가마솥 하나 걸어놓고 사람들 불러모아 음식잔치 벌이고 춤추고 노래하며 놀아보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내심 정말 그럴 장소가 어디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셨다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소박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해본다.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권양섭 선생님 편

온 가족의 대지에 내린 거대한 뿌리

편집부



우리현대사의 사진첩

북한산

겨울의 북한산은 차갑도록 파란 하늘아래 너무도 위세 당당하게 솟아 있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권양섭 선생님 댁을 찾아가는 날은 밤도록 찬 겨울바람이 산자락을 휘휘 쓸고 다니고 있어 어깨를 폐지 못하고 걷다 집을 찾기 위해 고개를 드니 바로 코 앞에 서있는 북한산에 놀라 우리는 어깨를 펴다. '너, 어깨펴라'고 호통하는 북한산의 위용에 놀려.

그렇게 위풍당당한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선생님 댁은 작고 초라했다.

녹슨 대문에서 "계십니까?"를 연속으로 다섯번이나 목청껏 외친 후에야 아기를 업으신 권양섭 선생님의 며느리가 나오셨다.

선생님댁에는 현재 여섯식구가 살고 있다.

22년의 형기를 마치시고 93년 출감하신 권양섭 선생님(78세), 같은 사건으로 연루돼 3년 6월의 옥고를 치루신 권선생님의 안부인이신 조석귀할머니(72세), 역시 선생님과 같은 사건으로 18년간 감옥에서 생활을 하셔야 했던 권낙기 선생님(49세), 당찬 노동투사에서 눈끝에 서글서글한 미소를 담고사는 두아이의 엄마가 된 이옥순 님(42세), 그리고 권양섭 선생님의 두 손녀 다정이와 다인이, 언뜻 화목하고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권선생님 가족의 개인사는 곧 우리 한반도의 격동과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어, 불행했던 우리 현대사의 사진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형의 항일운동을

거들다

권양섭 선생님께서는 1917년 경북 봉화군 내성면 유곡리에서 4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그다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자랐다.

누구에게나 삶의 스승이 한 둘씩은 있는 것처럼 권선생님께 종형이시던 권효섭 선생님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권선생님께서 권효섭 선생을 만난 것은 겨우 판단력이 썩을 무렵인 6살때였다. 권효섭 선생은 선생님과 12살이나 나이차가 나는 분으로 일본의 명치대에서 공부를 하다 진보적 사상에 눈을 떠 국내로 들어와 항일운동을 벌이고 계셨다.

선생님은 효섭 선생과 함께 생활하며 연락책의 역할을 했다.

감시를 무사히 빠져 나갈 수 있는 선생님의 어린 나이가 연락원의 역할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선생님이 9살되던 1929년 효섭 선생님은 광주학생운동과 관련하여 검거되었고, 권선생님은 13세가 되던 해에 다시 대구로 돌아와 효령보통학교에 3학년으로 입학했다. 나이가 꽤 들었으므로 처음부터 3학년 수업에 들어갈 수 있으셨다. 선생님은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집안일을 거들며 지내셨다. 반면 광주에서 올라온 종형은 봉화에서도 역시 항일운동을 계속해 봉화 경찰서를 내집처럼 들락거리시다 서울로 올라가 활동을 하시던 중 선생님을 서울로 불러들었다.

당시 선생님은 17살로 사회에 대한 문리가 트이고



있을 때였다. 3년정도 서울에서 형의 일을 돋던 선생님은 종형이 다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자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형과 일을 같이하던 분의 권유로 함경도 청진에 가 자동차 정비소 수리공으로 생활을 하시다 종형이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오던 39년 다시 서울로 왔다.

당시는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기로 형이 새로 시작한 발동기 판매가게는 형사가 늘 상주하고 있어 가게를 찾는 손님보다도 손님으로 가장한 형사들의 수가 더 많았다. 더이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종형이 가게를 정리하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대구로 내려와 운전을 배워 운수노동자로 생활을 하셨다.

선생님이 처음 몰던 차는 목판차였다. 선생님은 대구와 포항을 오가며 운수노동자로 생활을 하시다 중매를 통해 조석귀 할머니를 만나 안강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셨다. 종형을 따라 이곳저곳을 떠돌던 불안정한 생활이 조금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신혼살림을 시작한지 1년이 조금 지나자 종형은 인편을 통해 만주로 와서 함께 활동을 하자는 전갈을 보냈다.

“좋은 취직자리가 있다면서 금새 알아보고 온다고 떠납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런 줄만 알았지. 어디 만주까지 가 버릴 줄 누가 알았겠소?”

19살에 권씨 집안으로 시집와 이제 일흔의 노파가 되신 조석귀 할머니는 아직도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하신다.

만주에서도 선생님의 활동은 종형의 항일운동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운전기술이 있어 운전을 하며 백방으로 형의 활동을 돋던 중 항일운동가에 대한 검거의 바람이 불어닥쳤고 선생님은 고향 봉화로 피신을 오셔 해방을 맞이하신다.

남로당 대의원으로 선출

해방과 더불어 봉화에도 인민위원회가 설치되고 선생님은 그곳에서 일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이미 익혀두었던 운전기술을 운동에 적극 활용하셨다. 인민위원회에서 일을 하시던 중 하루는 안상길씨(상해 임정에서 간부를 지낸 사람)의 부탁으로 차를 몰고 여운형 선생댁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우익의 백색테러가 자주 빚어지고 있어 테러를 당한 선생님은 봉화에서 대구로 근거지를 옮기셨다.

대구에 올라 오신 선생님은 당시 몸담고 있던 운수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시며 남로당 대구지역 대의원으로 선출되셨다. 노동조합의 사업을 통해 선생님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몸으로 느끼시며 활발한 사업을 벌여 나가셨다. 노동자들이 풀처럼 일어나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일제의 몰락과 함께 이땅의 지배자로 들어온 미군은 고양되어 가는 민중들의 힘을 좌시하지 않았다. 미군은 좌파운동을 음으로 양으로 탄압하기 시작했고 분노한 민중들은 반미의 깃발을 올렸다.

46년 10월1일, 타지역에 비해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있던 대구가 선봉에 서 미군에 대한 반기를 들고 민중항쟁을 벌였다. 이미 전평의 9월 총파업을 겪으신 선생님은 대구민중항쟁에 참여하셨고 그 여파로 선생님은 경찰을 피해 숨어다니며 생활을 하셔야 했다.

그러나 대구에서의 피신이 더욱 어려워지자 선생님은 당의 지시를 따라 3.8선을 넘어 평양에서 교육을 받으셨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학교에 배치되어 약 3개 월간 학습을 받았다.

48년 다시 개성을 통하여 대구로 내려 오신 선생



님은 대구역에 내려서자 마자 검거되셨다.

“학교 1년 후배로 같이 좌의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우리 동지였습니다. 잠깐 같이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해 따라 갔더니 덜컥 수갑을 채우며 ‘나는 반동이다. 너를 잡으려 왔으니 순순히 따라와라’고 대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하도 기가 차서 허허 웃었지요.”

동지로 가장 했던 배반자의 손에 잡혀 선생님은 4년언도를 받고 영어의 몸이 되셨다.

“형무소에서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허벅다리에 생겼던 고름이 점점 커지더니 하루에도 고름이 한 바가지씩은 흘러 나오지, 식사는 부실하지 아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은 감옥에서 전쟁을 맞으신다. 전쟁이 터지자 형무소에서는 좌파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몰살정책이 시작되었고 선생님도 예외는 아니었다.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던 동지의 자리가 훼하니 비워지는 일을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 보고 있던 선생님의 이름이 드디어 불려졌다. 아침을 먹던 중이었다. 하던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려 하자 간수가 먼저 ‘다 드시고 나오시죠’ 하며 오히려 시간을 끌려고 했다. 최대한 천천히 밥을 삼켰지만 그 양이 원체 적어 밥그릇의 바닥은 쉽게 드러났다. 그러자 식사를 하지 않고 있던 동지들은 너도 나도 자꾸 선생님의 밥그릇에 밥을 밀어 주며 ‘너 먹고 가시요’ 하며 시간을 끌어 주는 것이었다. 바로 목앞에 있는 총구를 동지들이 막아준 것이다.

그러나 또 한번의 죽음의 고비가 찾아왔다. 좌익 운동을 한 사람들만 추려내 트럭에 타라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허벅다리의 상처로 거의 쓸 수가 없게 된 다리를 끌며 트럭까지 갔다. 차는 사람들로 빼곡이 차 있어 선생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선생님의 물골을 보고 군인들은 ‘그냥 두어도 죽을 사람이다’며 선생님을 남겨둔 채 차를 몰고 몰살의

현장을 달렸다. 다시 감방으로 돌아와 보니 종형이 그 감방에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그것이 선생님의 정신적 지주이시고 삶의 모범이 시던 종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거의 만기를 채우고 출감하신 선생님은 포항과 부산에서 4명의 아들을 둔 가장으로 몸에 벤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셨다.

온 가족이 ‘전과자’ 예요

그러던 72년 2월 경북지역 통혁당 사건으로 검거되셨다. 막힌 38선을 뚫고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려던 선생님의 소박한 꿈이 수갑에 채워졌다. 또 아버지와 같은 꿈을 꾸며 통일의 밭을 갈구려던 선생님의 장남이신 낙기 선생님의 짧은 날도 차가운 은빛 수갑속에 묶였다.

당시 ‘병풍사건’으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이 사건으로 선생님의 일가족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권선생님과 그의 아내는 물론 세명의 아들이 구속, 선생님의 여동생과 제수씨까지도 형을 살아야 했고 막내아들인 춘기씨는 어머니가 옥에 계신 3년6개월의 시간동안 출지에 고아가 되어 고아원에서 생활을 해야했다.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 살하고 살혀도 좀체 살혀질 것 같지 않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

그러나 그분들의 현재 모습은 아주 건강하고 푸근하다. 특히, 권낙기선생님과 이옥순님의 결혼이 아픈 가족사의 밭에 고운 씨를 뿠웠다.

이옥순 님의 경력도 낙기선생님 못지 않게 화려하다. 권선생님께서는 조국 통일운동의 지평을 넓혀 가는 일에 청춘을 바치신 반면 이옥순 님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산증인이다.

1년 동안의 감옥생활을 하시고 침체되어 있던 노동운동에 불화살을 쏘았던 원풍모방노조의 총무로



일을 할 만큼 이옥순님은 강단있는 노동투사였다. 그 후로도 서노련과 청계피복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지내시며 결혼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낙기선생님과 이옥순님이 만난 것은 90년. 그때 이옥순님의 나이가 자그만치 서른 일곱. 당시 낙기선생님은 구로동 만남의 집에서 장기수 선생님의 손발이 되어 생활하고 계셨고 이옥순님은 3년3개월의 수배생활을 마친 뒤였다.

이옥순님이 장기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88년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였다. 사회안전법폐지 투쟁을 통해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관심이 싹터 장기수 선생님들이 함께 생활하시는 구로동 만남의 집에 찾아가 권리생님을 처음 뵙게 되셨다.

"처음에는 만남의 집에 찾아가 선생님들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낙기선생님을 자꾸 뵙수록 참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했지요." 노동투사의 강인한 모습을 눈가에 묻힌채 순한 웃음으로 말끝을 흐리시는 이옥순님.

두분은 91년, 늦은 나이에 신혼을 시작하셨다. '투쟁속에서 꽂 핀' 굳건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위 사람들의 만발한 축복을 받으며.

그리고 이제는 두 토끼의 엄마 아빠가 되셨다.

선생님 댁의 생활은 어렵다. 구로동 집 세간을 북한산 자락으로 물고 왔을 만큼. 수입원이라고 해봤자 낙기선생님이 '민중탕제원'에서 벌어 오는 돈이 전부다. 하지만 탕제원사업도 전적으로 돈만 벌자고 벌여놓은 사업이 아니다보니 그 수입도 시들하다. 그래도 선생님 가족들의 생활은 너무나 건강해 눈물이 난다.

"어렵게 살겠다는 건 이미 각오한 일이니까 상관 없지만 아이들 육아문제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답답해요."

오랫동안 투쟁의 현장에서 굴하지 않는 노동투사

로 살아오신 여장부다운 고백이시다.

그러나 이옥순님의 더 큰 걱정은 다른곳에 있다.

"저희 시아버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하는데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오랜 옥고로 몸이 저렇게 망가져 나온 것도 분한데, 몸이 편찮으시니까 다른 일도 못하시고 늘 집에만 계셔야 하는게 속상해요. 그건 저쪽이 바라던대로 되는 거잖아요. 아무일도 못하도록 집에 그냥 가두어 두는거 말이예요. 우리 아버님 오래 고생하고 나오셨으니까 꼭 좋은 세상 보셔야죠."

마음에 담고 있는 시아버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자분자분 털어 놓으신다.

감옥에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면

현재 권양섭 선생님의 건강은 좋지 못한 상태이다. 원쪽머리의 뇌미세혈관이 막혀 오른쪽 손발에 자주 마비현상이 오고 시력도 떨어지신다.

선생님 얘기에 빠져 있다보니 11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그냥 계시라고 해도 권선생님은 구지 문밖까지 배웅을 나오셨다.

"내가 이렇게 밖에서 살고 있지만 편하게 아닙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픈 내 몸보다는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 있는 동지들을 더 걱정하는 시아버지, 남편과 아들의 삶을 넉넉히 품고 보듬으며 70평생을 묵묵히 살아 오신 시어머니, 언제뵈도 주위사람들의 어려운 일에 발벗고 나서며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아들 그리고 나보다는 시아버지를 더 생각하는 며느리.

한참을 걸어 나오다 뒤돌아보니 북한산의 매운 겨울바람속에 불빛을 뿜으며 작은 집이 의연하게 북한산을 지키고 있었다.



인·권·소·식

황석영씨 등,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자의적 구금 - 유엔의 결정

지난해 9월 29일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위원회(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이하 위원회)는 황석영(51세, 소설가, 공주교도소 수감), 최진섭(34세, 월간 '밀' 기자, 부산교도소 수감), 이근희(30세, 전 김대중 민주당 대표 비서, 영등포교도소 수감)씨 등 3명의 구금에 대해 자의적 구금 결정을 내렸다.

실무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황석영씨 등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 19조와 한국정부가 90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보장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자의적 구금”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29일 실무위원회로부터 황석영씨 등 3명의 자의적 구금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이러한 결정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이근희, 최진섭의 사건에 대해 90일내에 해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황석영씨의 경우에는 “다른 기구(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위원회)가 이 문제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실무위원회가 자의적 구금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한국정부가 이미 90년 가입한 바 있다. 우리 헌법 제 6조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국제법 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미 국내법으로 승인된 이 국제규약을 위반한 황석영씨 등의 구금으로 국제사회에서 규탄받게 될 것이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는 91년 3월

5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1991/42)에 의해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거나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 방법으로 구금된 사건에 대해 정부나 비정부 인권단체로부터 받은 정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비인도적인 행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

95년 1월 9일, 함주명씨(66세) 등 장기수 6명은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94년 7월 7일, 군사독재정권 당시 안기부 등에 영장없이 불법체포되어 장기간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함주명씨 등 장기수 11명은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을 서울지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지검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어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였고, 대검 역시 이들 중 함주명씨 등 6명에 대해 재항고 기각 처분을 내려 마지막 국내법에 호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고문범죄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인신구속에 있어서 영장에 의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공소시효제도는 고문범죄자를 더이상 소추할 수 없도록 하여 고문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구조받을 권리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함주명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던 1월 9일, 김영삼 정부는 ‘고문 및 그밖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금번 가입은 협약의 핵심조항인 개인청구권 등을 유보한 것으로 고문종식 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가 진정 고문종식의 의지가 있다면 국제 협약의 가입 이전에 고문범죄를 기소해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어야 하며 본 헌법소원은 정부의 고문종식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성·명·모·음

고문방지협약의 핵심인 개인청원권 유보를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한국정부가 1월 9일자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가입을 계기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범죄”인 고문이 완전히 근절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 그러나 고문방지협약에서 가장 핵심인 국가간 문제제기권(제21조)과 개인청원권(제22조) 유보는 바로 ‘고문근절 의지의 유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각 국가간 문제제기권(제21조)과 개인청원권(제22조) 유보를 철회하라. 이 두 조항은 고문의 종식을 위하여 고문행위를 감시하고 고문가해자에게는 처벌을, 고문피해자에게는 배상을 하기 위한 가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조항이다. 개인청원권은 어느 나라든지 자국 공무원에 의해 자행되는 고문을 국제사회, 구체적으로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호소함으로써 이를 고문방지위원회가 조사토록 하는 내용인데, 이 조항을 유보하는 것은 고문에 대한 국민청원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고문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말 고문을 행하지 않을 각오라면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고문문제를 제기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3. 고문은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신적 파괴까지 가져오는 극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수사기관

에 의해 빈번히 자행되어 왔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까지 했다. 그리고 최근 김삼석, 김은주 남매사건, 국교생유괴살해사건에서 드러난 고문으로 인한 사건조작 등에서 보여지듯 아직도 이런끔찍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다.

4. 또한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받은 잔혹한 고문의 기억과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으며 현재 고문피해자들이 고문경관들을 고소해 놓았지만 국내구제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제적인 구제절차인 고문방지협약의 선택조항들에 가입함으로써 고문피해자의 보상과 고문범죄자의 처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한 이상 이후 고문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법 등의 국내법 절차개정과 경찰을 비롯한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태도만이 고문으로 인한 과거인권침해를 청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입증하는 길이다.

5. 우리는 한국의 인권을 국제적으로 인권보호의 규범이 되고 있는 유엔인권기준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릴때 만이 정부가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세계화’의 실현임을 지적하며, 고문방지협약 가입이 허울좋은 국제적 위신세우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개인청원권 등 유보조항철회를 촉구한다.

1995. 1. 6.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 기족운동협의회/불교 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의 인권단체가 모여 94년 6월 만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킹 평화상 수상은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센터 95년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당혹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과거 야당의 지도자로서 군사정권과 맞섰으나,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바로 그 군사정권과 손을 잡은 김영삼씨는 대통령 취임 이후 문민정권임을 내세워 “세상이 바뀌었다”고 요란스럽게 선언했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이 내세운 ‘국제경쟁력 강화’와 ‘고통분담’의 논리는 과거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논리와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전의 어느 대통령에 못지않게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고 인권 침해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 지도자 시절의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는 ‘국가보안법 필요’로 바뀐 지 오래이며, ‘노동악법의 철폐’는 ‘노동법 개정 불가’로 굳어져 버렸다. 노동자의 파업이 경위와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는 현상이다.

냉전의 시대에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의 변화가 세계적인 조류이나, 과거 분단과 냉전의 유물이며 인권탄압의 최대도구인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여전하다.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무려 468명이다(94년12월6일 현재). 또한 김영삼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의 전형적인 노동악법인 제3차개입금지조항의 개정을 여러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이를 실행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조항을 이유로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수배, 구속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선 여전히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고 최근 고문으로 인한 사건조작까지 보도된 바 있다. 정부의 모든 홍보기관이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바로

지금,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과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인권상황은 나아진 바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거나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킹 평화상을 주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거룩한 생애를 회상하면서,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은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한국인에게 깊은 실망을 줄 것이며 이는 평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생애를 바친 킹 목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귀한 상의 수여의의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1995년 1월 23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사회안전법 위헌 소송,
손해배상 청구액 변경신청

형을 다 살고 나왔음에도 1975년 제정된 악법, 사회안전법에 의해 ‘재벌의 위험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도 없이 감옥에 다시 끌려가 89년 폐지되기까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셨던 35분의 장기 수 선생님들이 1991년 ‘사회안전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은 올 2월말께 1심이 마무리 될 예정인데 2월 6일, 손해배상청구액 변경신청을 내셨답니다. 선생님들은 1인당 30만원의 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변경해 1인당 인지세 15만원씩을 내고 1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판결이 나와 선생님들의 ‘빼앗긴 짚은 세월’을 되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빛나는 목요일의 보랏빛 물결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너무 소식이 없어서 죄송하기 짜이 없습니다. 혹시나 저를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꾸짖거나 않으셨는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넉넉하고 당찬 어머님, 아버님들, 사무실 일꾼들, 다른 잘 계십니까?

지난달 7일, 영등포에서 이곳 대전으로 번개불에 콩복 둑 옮겨왔습니다. 비둘기가 입으로 하나하나 물어나르며 집짓듯 1평 조금 모자라는 제 '새등지'도 이젠 살림살이가 좀 늘어서 의젓한 보금자리가 꾸며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듯도 합니다.

면회실에서, 혹은 기자회견장에서 그리고 우편환 보내는 우체국에서 저희를 쟁겨주시느라 얼마나 신경을 써주셨습니까? 모든게 창신동 일꾼들과 식구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나 해가 바뀌고 또 이곳으로 옮겨왔을 때나 잊지않고 영치금을 보내주시니 감복할 따름입니다. 또한 [고삐]라든지 백낙청 님의 [분단체제 변혁의 길] 그리고 리영희 선생님의 [새의 날개...]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삶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빛나는 목요일의 '보랏빛 물결'을 볼 때마다 절로 숙연해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 달력 목요일엔 탑골공원과 저를 잇는 끈끈한 동그라미가 한 주마다 쳐져지고 있습니다. '법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되풀이 해야하는 '세계화'가 날뛰는 현실은 혁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서막이 오르던 날, 바스티유 감옥이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은 '법'과 '규정' 때문이었지요. 세계화가 상식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95년엔 '법이란 넉넉하고 당찬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젊은 사람이 여기 들어 왔으니까 모든 장기수 어르신네들과 교체할 때가 아닙니까? 재삼 건강하십시오.

김삼석 님은 1993년 9월 10일에 구속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백홍용씨의 양심선언으로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단 사건은 안기부에 의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의 말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이 종

지난해 12월 29일 입원하셨던 이종 선생님께서 병환이 회복되어 95년 1월 26일 퇴원하셨습니다. 선생님의 투병의지와 병원일꾼, 간병일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염려로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동안 성의껏 간호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김은숙, 이정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문병오셔서 성금까지 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은 의료보호 1종에 해당되어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았고 남은 돈은 선생님들의 건강관리에 쓰여질 것입니다.

선생님의 감사 인사를 실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저녁이었습니다. 돌연한 급성췌장염으로 인사불성의 상태였는데 마침 권오현 선생이 와 계셔서 방문중인 이달호, 문영배 선생과 함께 지체없이 구급차를 불러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 여러 선생과 젊은 분들의 간곡한 위로와 치료비 회사에 감사하고 직장근무에 고단하심도 불구하고 밤샘 간호한 선생님들과 29일 동안을 하루같이 정성어린 간호에 심신을 다한 김은숙 양과 함께 여러 회원들의 가족적인 간호에 힘입어 조기퇴원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들과 젊은이들의 먼 지방에서까지 연이은 문병과 “선생님” 칭호에 옆 병상의 환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무슨 훌륭한 사업을 하셨기에 그렇게 제자를 많이 두셨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요.

스스로 낯 뜨거움과 아울러 고통을 잊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바르면 비록 오랑캐 땅에서일지라도 외롭지 않다.”는 옛성현의 말씀을 생각해보았던 병상이었습니다.

거듭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올리며 더욱 건강에 정진하겠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

한 경 임(민애전·애국동맹 구속자기족 후원회'한결같이')

밖에는 눈이 겁나게(?) 내리고 있었다.

"오늘 같이 눈오는 날에 무슨 등산이냐?"

"어찌지..."

"김밥은 참기름을 넣고 밥을 비벼야 맛나지."

이른 아침 김밥을 말고 있는 내게 어머니께서 대신 걱정을 해 주신다.

우리 '한결같이'가 꾸려지고는 처음으로 양심수후원회 가족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 가는 산행 이기도 해서 하필 날 잡아서 얇궁게 쏟아지는 눈발이 원망스럽 기만 했다. 연세드신 어르신들께서 가신다는데 혹시 미끄러지시 기라도 하면 큰일이겠고...

이런저런 걱정을 안고 출발한 산행이었지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이 그런 걱정을 쓸모없게 만들어 주었다.

이름도 재미있지만 성격도 재미있으시고 텔털하신 '옴시룡 감시룡' 분들, 우리 가락을 멋드러지게 불러제껴 산행의 홍을 한껏 복돋아주셨던 '여든여덟' 분들, 우리에게 맛 보여주기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맛있는 빵을 만들어오신 '베이커리 아티스트'라는 분, 중학교 시절 농

활 운 대학생들과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전주에 계시는 장기수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스물한살 아가씨, 후원회 간사 송 낭자의 광주 후배님들, 우리들이 마치 병동의 환자들에게서 느껴지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잠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눈이 예쁜 정신과 간호사 낭자, 후원회 산행상 가장 오랜 코스(사실 솔직히 말하면 짧은 나도 무지 힘들었고 다음 날 몸살로 앓아 누웠음)임에도 전혀 피곤한 표정을 보이시지 않고 짧은 이 못지않은 기백을 보여주신 이세균, 최남규 선생님...

다시금 소중하고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됐다는 고마움이 가슴을 채운다.

변해야 할 것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뭔가 달라졌다고 우리는 상황, 80년의 그 치열함은 80년대와 함께 마감되었다고,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는 그런 불온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얘기되는 세상에서 바로 그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95년을 통일이 시작되는 해라



▲ 온 산이 눈에 덮여 고왔던 날, 힘겹게 오른 보현봉에서 잠시 웃음을 모았다. 우리는 산성능선을 타며 거울산행의 짐짓을 보았다.

고 말한다. 누구도 주저함없이. 할 일이 그만큼 많은 해라는 의미일거다. 통일이 시작되는 해, 양심수후원회에 모인 '희망'들은 어떤 뜻을 해내야 할 것인지 자문하고 지혜로운 답을 구해야 하는 때인 것이다.

산행중에 우리 노랫가락을 듣고 감명받았다는 어르신네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먼훗날 양심수후원회를 '통일후원회'란 애칭으로 불릴 수 있는 영광도 있을지도 모르고...

"양심수후원회에 모인 희망들! 우리 함께 우리 뜻 열심히 해봐요."

이·런·일·이·있·었·어·요

- (1·1) - 지도위원과 출소 장기수 선생님께 새해 세배를 드렸습니다.
- (1·2) - 93년 민가협 상임의장으로 수고해오신 서경순 어머니께서 관절염으로 덕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1·4) - 강동시립양로원으로 임병호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 (1·5) - 대통령 김영삼 씨, 킹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났습니다. 인권침해자가 세계적인 인권옹호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 보라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이 종 선생님께서 725호실로 옮기셨습니다.
- 민가협이 여는 새해 첫 목요집회가 탑골공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선생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분과에서 황석영, 최진섭, 이근희 씨등을 자의적 구금으로 결정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결정사실을 숨겨왔습니다.
- (1·6) - 강화남 범민련 남측 준비위원장님께서 1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셨습니다.
- 조선대학교 조대신문 기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양심수 문제등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 감옥안에 계신 양심수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했습니다.
- 대통령 김영삼 씨가 새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세계화를 주장했으나 인권문제와 통일문제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등 4개 단체 100여명, 용산 미 8군 정문 앞에서 폭행미군을 우리 검찰에 넘기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 (1·9) - 함주명 씨 등 장기수 6명이 고문수사관 고소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고문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정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고문방지협약의 핵심인 개인청원권은 유보했습니다.
- 외국인노동자, 노동단체 회원 60여명이 인권개선과 감금, 폭행하는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며 명동 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1·10)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월 운영위원회와 지도위원, 감사와 함께 새해인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양심수가 없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단 사건 조작을 폭로한 백홍용(일명 베인오)씨가 안기부공작원 이라는 사실을 권영해 안기부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했습니다.
- (1·11) - 범민련, 전국연합 관련으로 옥고를 치르셨던 석방자들을 환영하는 모임이 종로성당에서 열렸습니다.
- (1·12) - 민가협 목요집회가 탑골공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 안양지역 민중교회 목사님들,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셔서 후원성금으로 400,000원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성현 수도장로교회에서 성금 388,7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선원 전기협 의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서강대 박홍총장, 수험생들에게 "좌경 폭력 혁

이·련·일·이·있·었·어·요

명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으라고 교수회의에 지시하는 등 망발을 거듭했습니다.

- 김남매 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 발동을 요구하며 민가협 등 인권단체 회원들이 안기부 앞에서 규탄시위를 했습니다.

- 1·13
- 음성 꽃동네에 계시는 유한옥 선생님을 뵙고 왔습니다.
 - 인천지검 공안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 김포군 주민대표 전남석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입건하였습니다.
 - 권영길 전 언노련 의장, 서울신문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 1·14
-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도식이 모란공원 묘소에서 있었습니다.

- 1·15
- 김영승 선생님 회갑연과 따님 김승희 양의 돌잔치가 많은 축하손님이 함께 한 가운데 신촌 한일 옥에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승희는 무럭무럭 자라렴!

- 1·16
- 민가협 민주가족의 날이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양심수 전원석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 1·17
- 민가협 등 인권단체 회원들, 서강대 정문 앞에서 수험생 서약서 강요는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 부산지법 형사 3부(박태범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냈습니다.
 - 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고향방문을 위한 불교

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1·18
- 문익환 목사님 1주기 추도식이 모란공원 묘지에서 있었습니다.

- 1·19
- 70번째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 밀양 솔밭 공원묘지에서 박관수 선생님 3주기 추도 모임이 열렸습니다.
 - 현법재판소, 12·12 헌법소원에서 전두환의 공소시효 7년 연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유예 조치 인정하는 모순을 범했습니다.
 - 이종 선생님께서 단식을 마치시고 처음으로 죽을 드셨습니다.

- 1·22
- 양심수후원회 95년 첫 산행을 25명이 모여 북한산으로 갔습니다.

- 1·23
- 민가협 제10차 총회준비위원회 모임이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 통일의 꽃 임수경 양이 화촉을 밝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한총련 제3기 일꾼들, 사무실에 방문인사를 왔습니다.

- 1·25
-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김영삼씨의 마틴루터킹 ‘비폭력평화상’ 수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킹여사가 방한 기자회견을 갖는 김포공항에서 벌였습니다.

- 1·26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자의적 구금 결정이 난 6명의 양심수 가족이 나와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 이종 선생님께서 급성췌장염으로 입원하신지 30일만에 퇴원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이·런·일·이·있·었·어·요

-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김남매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안기부수사관을 국가보안법 12조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 무연고 출소 장기수 선생님께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1·27)

- 양심수후원회 8, 9, 10, 11, 12월 회계 및 일반 업무 감사를 받았습니다.
- 양심수를 염려하는 박철 선생님께서 1,000,000 원의 큰 성금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재성 선생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문안 을 다녀왔습니다.

(1·28)

- 권양섭 선생님 댁을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1·30)

- 김영만, 금재성 선생님 찾아뵙고 새해인사 드렸습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이정훈(강남구 역삼동) 김미형(관악구 신림본동) 최화영(도봉구 미아8동) 이희정(성동구 능동) 김상기(용산구 후암동)
김은경(종로구 흥파동)

1월에 구속된 양심수

장재영 - 조선대 학원자주화추진위 부위원장

신웅섭 - 외국어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정우달 - 대구 민주노총 준비위

강미자 이진영 김미라 함평기 오세중 - 혁사노 구속자 대책위

알립니다

광주에 계시며 “빛고을 탕제원”에서 일하시는 윤기남 선생님(27년 복역, 70세)께서 건강이 악화되셔서 광주시 화정동 댁에서 투병중이십니다. 선생님의 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
(전화 : 062 - 375 - 3507)

전창기 선생님(22년 복역, 77세)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민중탕제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은 건강이 놀랍게 빨리 회복되셔서 전주 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선생님의 건강을 바랍니다. (전화 : 0652 - 211 - 4351)

...신나는 2월산행 ...

언제요 1995년 2월 19일 이른 10시
어디서요 우미동 그린파크 앞
어디가나요 도봉산 갈겁니다
뭐 갖고 와요 만난 도시락이랑 3,000원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국민의 땀과 힘에 의해

이땅에도 군사독재가 끝장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정부는

국민들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쳐버리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800명이 넘는 양심수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감옥안에는 5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심수 중에는 적개는 10년, 심지어는

44년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6명이나 됩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않고 햇빛 한점 자유롭게 맛볼 수 없는 분들께

감옥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께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 결연을 추진합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탁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